

# 11월 5일 인문학페스티벌

## 김초엽작가와의 만남 - 북토크 내용 정리

장소: 가로수도서관 2층 공연장

사회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작가님의 강연 말고, 여러분들이 작가로서 김초엽에 대해서 궁금한 점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책을 읽다 보면 책의 내용에 빠지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 이 작가는 누구지 하면서 작가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는데요. 우선 제가 받은 느낌은 김초엽, 초엽이라는 이름이 개성 있으면서도 굉장히 예쁘게 느껴졌거든요. 초엽, 어떠십니까? 이름. 마음에 드십니까?
김초엽	마음에 듭니다. 근데 장단점이 있는데요. 살면서 제 이름을 가진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페이스북 이런 데서 검색해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독특한 이름이라 약간 신경이 쓰이긴 해요.
사회자	어떤 튀는 행동을 하면 바로 나밖에 없다 뭐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되는 이름인가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초엽이 풀, 그래서 제가 작가님의 이름을 듣고 난 다음에 김수영의 풀이라는 시가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면서 보기에는 여러보이지만 절대 꺾이지 않는 뭐 그러한 모습을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즘 작가님은 어떤 책을 읽고 계신가요? 핵심은 요즘인 거 같아요, 요즘 작가님이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요? SF에 특화된 작가님이시다 보니까 그 쪽을 주로 읽고 계신 건지? 이런 궁금증을 질문으로 남겨주셨네요.
김초엽	SF만 읽지는 않지만 다음 작품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SF 중단편을 읽고 있어요. 장편 뇌로 바꾸었다가, 단편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단편...
사회자	그게 바로 바로 전환이 되십니까?
김초엽	네. 다른 작가들 작품을 읽으면 전환이 되는 거 같아요.
사회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두 번째 질문, 빠르게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작가님 어머니께서 시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작품을 읽어보고 싶어요. 어머니 시집 중에 추천 하나 해주세요. 이런 질문이 올라와 있거든요.

김초엽	엄마가 비매품으로 내셨어요. 그러지 마라 했는데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판매를...
사회자	그럼 우리는 읽을 수가 없는 건가요? 질문하신 분 조금만 더 인내를 갖고 참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작가님의 소설을 읽다 보니까 부모님의 영향을 은연 중에 받는 작품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뭐 지구 끝에 온실 같은 경우에도 작가의 말을 보면 아버님께서 원예학을 전공하셨고, 식물은 뭐든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했거든요. 작품을 구상할 때 부모님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지 이 질문에 살짝 엿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초엽	지구 끝의 온실은 확실히 부모님과 얘기를 많이 했던 거고, 다른 작품 같은 경우에 제가 소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구상 관계에서 얘기를 나눈 건 온실 정도인 거 같아요. 지구 끝의 온실 쓰기 전에는 식물을 안 좋아했어요.
사회자	반전이 있습니다. 안 좋아하는데 작품화하시고요. 그렇죠?
김초엽	별로 안 좋아했었고, 사실 부모님 두 분이 식물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제 이름이 초엽인 건데,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흔하게 접하면 감흥이 없어지잖아요. 별로 관심이 없다가 저 책을 쓰면서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 부모님과의 대화가 조금 늘었죠.
사회자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 작품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어떤 내용일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한 달도 안 돼서 신간이 나왔지요? 파견자들이라는 신간이 나왔는데 뭐 그거에 대한 소개 조금 해주시고, 혹시 구상하고 있는 작품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초엽	신간 작품이 나온 게 1주 정도 지났는데요. 그 작품은 곰팡이, 사실 스포일러 없이 보시면 제일 재밌는데, 지하 도시가 있고 사람들이 지하로 쫓겨났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지상은 사람들을 보내는데 이게 파견자예요. 주인공이 파견자가 되고 싶어 하다가 갑자기 막 사건 사고가 휘몰아치는, 이것을 제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 텅 빈 상태고, 빨리 뭔가를 써야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사회자	지금 현재는 파견자들이 나온 거에 만족하는 단계. 조금의 휴식 기간을 갖고 또 다른 작품을 구성하실 예정이시고, 많이 기대가 돼요. 뭐 조르는 거 같잖아요. 방금 신간 냈는데 다음 거는요? 다음 거는요? 이러면서 약간 조르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아까 강연을 하시면서 SF의 고전이

	<p>라든지 많은 작품들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김초엽 작가만 아는 바보인가 봐요. 다른 작품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SF의 대표적인 젊은 작가 이면서 알림을 신청, 신간 알림의 1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대단하신 분이시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p> <p>다음으로 넘어갈까요?</p> <p>네 번째는요, 본업인 연구원과 글쓰기를 같이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글을 쓰고 계신가요? 작가님의 글쓰기 루틴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p>
김초엽	<p>저는 2018년부터 작가 생활을 하고 있고요. 아까(강연)도 얘기했지만 시한부로 시작한 작가였는데, 1년씩 연장되다 보니까, 계속 이어졌고. 원래 데뷔 초기에는... 원래 대학생 때 나쁜 버릇이 들어서 친구들이 다 버락치기 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마감 다 되면 그때 몰아서 하고 밤 새서 하는 친구 많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20대 후반부터는... 생각을 했고, 글을 쓰는 시기와 안 쓰는 시기가 달라요.</p> <p>규칙적으로 살기 어렵기 때문에, 목숨만 잘 부지하자 생각하는 편이고, 글을 쓸 때는 인터뷰나 강연을 전혀 잡지 않고 직장인처럼 글을 씁니다. 공유 사무실 이런 데로 출근하고, 7시쯤 퇴근하는, 규칙적으로 글을 쓰는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해야 좀 저의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글이라는 게 매일매일 잘 써지는 날보다는 안 써지는 날이 더 많거든요.</p> <p>규칙성이 내 먹살을 잡고 끌고 가는 거거든요. 안 써지고 쓰기 싫어도 그냥 쓰게 되는 루틴을 하는데, 그게 작가한테는 필요한 거 같아요.</p>
사회자	<p>저마다의 작가들은 루틴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글을 쓰는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평상시에는 조금 자유롭지만 글을 써야 되겠다 싶으면 직장인인 거죠? 그 루틴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p> <p>그러면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인데요. 다섯 번째 질문은 굉장히 겁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p> <p>저는 SF 소설의 작가님의 첫 소설 책으로 입문했는데요. 작가님이 좋아하시는 SF 작가님이 계신가요? 국내, 해외. 작가님이 처음 SF 소설을 좋아하게 되신 계기가 있나요? 작가님이 좋아하시는 작품이 있다면 장르 불문하고 추천해주세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작가님의 첫 소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다면을 읽고 SF 소설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구나 처음 느꼈어요. SF 장르의 매력은 인간을 우주 밖으로 내보낸다는 데에 있는 거 같아요. 우주에서 보면 인간은 한없이 작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인</p>

	<p>간은 지구의 손님인데, 문명이란 얼마나 무례한가. 지구의 주인인냥 행세를 한다는 반익하와 춘타로의 시 한 구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최근 중국 서문상 수상에 이어 은하상 최고 인기 외국 작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작가님의 팬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아졌어요. 청주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작품 많이 써주세요.</p> <p>이건 작가님에 대한 러브레터 아닙니까?</p> <p>자, 여기에 세 가지의 질문이 들어가 있는데 작가님이 좋아하는 SF 작가님, 작가님이 처음 SF 소설을 좋아하게 되신 계기, 이건 아까 나왔던 부분이고요. 작가님이 좋아하는 작품 추천, 이 세 가지인데 이 중에 답하고 싶은 걸로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p>
김초엽	<p>좋아하는 작가나 작품 추천 아까 강연 때 보여드린, 제가 뭐 고전은 취향 아니다 이런 말도 했지만 그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을 소개를 한 거고요. 처음 SF를 읽게 된 거는 고등학생 때에 제가 그때 과학을 좋아하다 보니까 과학 책을 엄청 읽었거든요. 코스모스 이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걸 되게 많이 읽었는데 보통 과학 출판사에서 SF를 같이 낸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같이 따라읽게 된 거예요. 이 책도 너무 재밌다 하고 뒤에 보면 같은 출판사의 다른 책들에다가 그렇게 SF를 접하게 된 건데, 재밌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참 과학에 빠져있었기 때문에 주기율표를 보고, 인생의 진리가 여기 있는 게 아닐까. 우주는 단순한 법칙으로 설명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 과학과 관련된 소설도 재밌었기도 하고.</p> <p>근데 이제 직업으로 삼게 될 줄은 몰랐던 거 같아요. 그때는 뭔가 가볍게 이렇게 재밌는 것도 있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p>
사회자	<p>와~ 주기율표가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 나이에 주기율표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돌이켜 보니까 즐겼던 거 같습니다. 이게 뭐지? 이러면서 외우면서 즐겼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p> <p>칼 세이건의 작품을 좋아하시고, 콘택트를 좋아하지 않으실까. 아니었군요. 네. 그냥 코스모스를 좋아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p> <p>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11가지의 질문에서 5가지의 질문을 드렸는데요. 잠깐 쉬어가는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p> <p>&lt; 잠깐 퀴즈 &gt;</p> <p>네, 정답.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었습니다. 아까 지구 끝의 온실 같은 경우에는 판권이 팔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입니까?</p>

김초엽	작품들이 영상화가 될 때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회자	<p>일단은 예정이라는 거죠. 예. 부디 영화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스튜디오 드래곤 주식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43%예요. 제발 작가님의 기운을 받아서 지구 끝의 온실로 주가가 상승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힘을 주세요.</p> <p>그럼 다음 궁금증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요, 일곱 번째하고 연결을 시켜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같이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작가님에게 가장 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인가요? 분노하는 거, 요즘 가장 사랑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네요.</p>
김초엽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최근에 장편을 완성했을 때 가장 기뻐던 거 같고, 그 외에는 그만큼 저에게 기쁨을 주는 건 없어요. 거기서 한번 밖으로 나오면 인생사가 초연해지는 거 같아요. 여러 뉴스나 사건 이런 거를 계속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담으려고 하고, 그리고 물론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엄청나게 화가 날 때도 있지만 그 와중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생각으로 돌아오려고 마음을 붙잡는 거 같습니다.
사회자	여덟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은 어떤 걸 행복하게 여겨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김초엽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 중 하나가 호기심을 잃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는 세상 모든 곳에 다 호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른이 되면 그것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대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고, 친절할 수도 있고, 또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호기심을 잃지 않는 거. 저에게도 계속해서 되뇌이고 있는 태도인 거 같아요.
사회자	다음에는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용어들은 어디서 영감을 받는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조금 애매하기는 하네요. 아무래도 과학적인 분야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김초엽	장면에 대해서 물으신 거 같은데 저는 아이디어를 얻는 재료를 쌓는다는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작명은 직관에 의존하는 영역인 거 같아요. 인물의 이름 짓기가 어려운데 보통은 인물이나 지명을 지을 때는 국적성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이 인물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 아니면 아예 국적이 없는

	<p>것처럼 처리하고 싶은지 이런 거에 따라서 짓는 게 좀 다르고. 또 과학적인 용어들은 제가 원래는 좀 일부러 좀 어렵게 쓰는 편이 아니었어요. 작품 하나당 어려운 용어는 한 두세 개만 쓰자 이렇게 쓰다가, 좀 독자님들이 적응하신 거 같아서, SF라는 장르에. 최근 작품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많이 넣어 봤고요. 작명할 때 용어 같은 거 만들 때 챗GPT랑 얘기를 많이 해보는 거 같아요. 챗GPT가 글을 쓰는 건 못하는데, 이름 지을 때 좀 유용하거든요. 내가 지금 머릿속에 있는 컴퓨터에 대한 새로운 용어를 만드려고 하는데 몇 가지 추천해줘라고 하면 챗GPT가 만든 답변을 그대로 쓸 수는 없지만 뭔가 조합해서 쓸 만한 게 조금 있다고 해야 될까. 그렇게 씁니다.</p>
사회자	<p>챗GPT를 활용하시는 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간단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한 달에 책을 얼마나 읽는지 궁금해요. 한 달에 책 어느 정도 읽으시나요?</p>
김초엽	<p>평균 내보니까 10권에서 15권 정도 읽는 거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게 직업이기 때문에 많이 읽는 거고, 직장 다니시면 이렇게 못 읽죠.</p>
사회자	<p>직업으로서 책을 읽을 때하고, 그냥 온전히 내가 책 읽는 직업을 느끼기 위해서 책을 읽을 때하고 조금 다른가요? 접근 방식이.</p>
김초엽	<p>되게 많이 다르고, 사실 저는 책을 많이 안 읽었기 때문에 비교해보면 확실히 다르긴 한데 직업으로 읽는 것도 재밌어요. 과거에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분야만 읽었다면 직업이 된 이후에는 내가 모르던, 별로 좋아하지 않던 분야의 책도 많이 읽게 되는데 이게 오히려 나의 관심사나 세계를 좀 확장하는 느낌이 있어요.</p>
사회자	<p>네,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열한 번째 질문입니다. 글을 쓰다가 막힐 때, 지칠 때,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아까 강연에서 언급이 되었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조금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p>
김초엽	<p>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답변으로 드리기도 했던 규칙성, 강조를 하고 싶은데 특히 내가 매일매일 쓰는 글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한 달, 두 달 썼던 글을 돌이켜봤을 때 내가 매일매일... 내가 매일 쓰면서 좌절하고, 아니야 오늘 글 쓸 기분 아니야 하며 안 썼다면 그 단점을 발견하지 못했겠죠.</p> <p>거대한 프로젝트를 할수록 매일매일 나의 감정을 추려내는 게 중요하고,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사회자	<p>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전 질문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시간 관계상 현장 질문은 조금 어려워서 그러면은, 하나는 제가 하면 안 될까요?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이틈에 끼어들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지</p>

	<p>금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있고, 그 기술력으로 책의 내용이라든지 정보가 독자의 뇌에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것이 독서의 본질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작가님은 생각을 하시는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p>
김초엽	<p>사실 기술이 발전해서 먼 미래가 되지 않더라도 지금도 좀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같은데, 유튜브에 보면 책 내용을 요약해서 10분, 5분 만에 전달해주는 유튜브라든지 그런 거 유행하잖아요. 영화도 마찬가지로 10분 짜리 클립으로 보는 이런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매체이든 간에 그것에 나의 시간을 들여서 이 과정을 함께할 때 내가 받는 인상이랄까 그런 게 있는 거 같거든요. 어떤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최소한 2시간에서... 압축적으로 읽었을 때랑 내가 2시간에서 10시간 긴 시간을 고군분투 하며, 내가 이 문장이 나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싸우면서 읽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뭔가를 즐길 때도 마찬가지로인 거 같아요. 10분 동안 본 영화가 내 인생 영화가 되기는 어렵지만 영화관에서 본 2시간 반짜리 영화가 내 인생 영화가 될 수 있잖아요. 긴 시간을 들인다는 것. 이게 인간에게 어떤...~~</p>
사회자	<p>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김초엽 작가님과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함께 했는데, 혹시 뭐 마지막으로 청주의 독자들을 위해서 이 말은 조금 하고 싶다, 이런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p>
김초엽	<p>좋은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요. 제가 기차를 다 매진돼서 빠듯한 시간만 남아있어서, 양해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찾아와주셔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p>